



전북체육회와 도내 14개 시·군체육회가 27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전북도민체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도민체전의 첫 단추로 꼽히는 각 종목별 대진 추첨이 열렸다.

도민체전, 화합·축제의 장으로

전북체육회-14개 시군체육회 대표자 회의 열고 계획 논의
과열경쟁 인한 사고 예방 입 모아
종목별 대진 추첨도 함께 열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와 도내 14개 시·군체육회가 함께 제56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치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7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도체육회와 시·

군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민체전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치러지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현재까지 진행 된 대회 추진상황을 비롯해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자칫 각 시도간의 과열경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고 화합과 행복 체전으로 이끌어내자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선수와 관람객을 위한 안전체계를 확보하고,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대표자 회의가 끝난 뒤에는 도민체전의 첫

단추로 꼽히는 각 종목별 대진 추첨이 열렸다.
추첨자로 나선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 중 일부는 대진 추첨 상황에 따라 탄식하기도 했고, 부전승으로 배정받았을 때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도민체전은 각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펼쳐지는 대회가자 화합의 장이다"며 "대회 준비를 철저히 기해 그 어느때보다도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제56회 전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5월10일부터 12일까지 고창 일원에서 열리며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명이 참가한다. /장은성 기자

프로야구 연감·가이드북·레코드북·공식야구규칙 나왔다

야구위원회, 지난 시즌 리그 관련 모든 정보 수록돼 5부로 구성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9 KBO연감·가이드북·레코드북·공식야구규칙을 펴냈다.
2019 KBO 연감은 지난 시즌 KBO 리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록들이 수록된 책으로 총 5부로 구성됐다. 제1부는 구단 별 회고 및 종합분석으로 지난해 KBO리그에서 화제가 된 기록들과 모든 이슈들을 정리했다. 2부에는 각 팀의 주요 기록과 선수 개인의 통산 및 지난

시즌 성적이 수록돼 있다. 3부와 4부는 2018년 전 경기 박스스코어와 시범경기 및 포스트시즌, 국제대회와 관련된 기록들을 담았다. 5부는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쳐 주요 시상식에서 수상한 선수 명단과 역대 관중 현황이다.
2019 KBO 가이드북은 KBO 리그에 소속된 모든 선수에 대한 정보가 수록됐다. 정규시즌 일정을 포함해 전 구단 선수 명단 및 주요 프로

필이 사진이 담겼다. 더불어 퓨처스리그 일정, 상무와 경찰 야구단 선수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구단별 선수 이동 현황, 역대 외국인선수 현황 등은 부록이다.
2019 KBO 레코드북에는 역대 KBO 리그 주요 진기록들이 수록됐다. 투수·타자 주요 기록 및 홈런·끝내기·신인, 외국인선수 등 부문별 기록 등 KBO 리그를 빛낸 영광스러운 기록들을 세분화해 수록했다.
공식 야구규칙에는 야구 관련 기본적인 용어부터 상세한 규칙이 서술돼 있다.
2019 KBO 정기 간행물은 위판에서 27일부터 판매한다. /뉴시스

남고부 핸드볼 '전국 최강'

전북제일고 핸드볼팀, 전국대회 우승

전북제일고등학교 핸드볼팀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며 핸드볼 최강 면모를 과시했다.
27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전남 무안 일원에서 열린 '2019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 중·고등 선수권대회'에서 전북제일고 핸드볼팀이 남고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남고부에는 전국 17개 팀이 참가했으며, 조별 예선리그와 결선 토너먼트를 거쳐 중별 결승전으로 치러졌다.
제일고는 예선 1·2차전을 모두 승리로 이끈 뒤 본선에 진출했고 8강전에서 만난 경원고를 29대14로 제압했다. 남한고를 준결승전에서 만난 제일고는 30대22로 승리했고, 결승전에서는 정석과학고를 상대로 29대15로 승리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또 우승과 함께 골키퍼 이해성(3년)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박종하 감독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올해 열리는 각종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제일고 핸드볼팀은 지난해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55년 전통의 핸드볼 명문팀이다. /장은성 기자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 가져왔어요'

전북현대 이용·이주용, '스쿨어택' 일환 정음여고 방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백승권) 이용, 이주용 선수가 정음시에 위치한 정음여고(교장 박강덕)를 깜짝 방문해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 강원전에서 실시한 '스쿨어택'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 이뤄졌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음여고가 첫 번째 방문 학교로 선정됐다.
이용과 이주용은 츄러스와 핫도그, 음료 등 200명분의 간식트럭 두 대를 준비

해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전주성에 찾아와 응원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구단 SNS에 게시물을 올리며 직접 참여한 학생에게는 교실로 찾아가 사인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선물을 전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쿨어택'은 전북현대 흥경을 직관하고 구단 SNS에 인증하는 이벤트로 이번 스쿨어택에는 28개 학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다. /뉴시스



전북현대 이용과 이주용 선수는 27일 정음시에 위치한 정음여고를 깜짝 방문해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전달했다.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